

미추홀 나눔천사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나눔천사로 선정된 분은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동부슈퍼의 '나경범 대표님'입니다!! 짹짹!! 인터뷰 내내 오히려 자신들께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어떤 만남과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Q. 지속적으로 후원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처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은 10여 년 전 물건납품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복지라는 일에 큰 관심도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지관의 체계적인 모습과 정직한 자세, 섬세하고 세심한 배려들을 보게 되었고, 복지에 대한 편견을 깨고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나눔이란 물질적인 것을 떠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나눔을 실천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치레 형식의 가식적인 나눔이 아닌 진정한 나눔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보다 나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다양한 활동을 하고계신 나눔천사 그의 생활을 살짝 엿봤습니다.

현재 약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동부슈퍼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요즘들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게를 열고 가격을 내려 판매하여 힘들기는 하지만 다른업체보다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품질의 물건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큰아들이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2년이 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대접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청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일까지 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Q. 미추홀에 하고 싶은 말씀은?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경제침체로 인한 후원자의 감소로 인해 운영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변함없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영리를 취하지 않는 진정한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으로 번성하였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대한 편견을 깨고 봉사와 후원을 실천하고 계신 나경범 사장님과 가족 여러분!

온몸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저희 미추홀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잔뜩한 사장님!!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동부슈퍼마켓!!



동부슈퍼 가는 길~